

“헌것 다오 새것 줄게” 나주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실시



출근길 400여명 참여 폐건전지 6250개(350kg) 수거

올바른 분리배출시 환경 보호·유용 금속물질 추출 지원

나주시는 최근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한국건전지재활용협회와 함께 사전 공지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길에 가져온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폐건전지에는 망간·리튬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분리수거 없이 생활쓰레기로 매립될 경우 토양, 수질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다.

반대로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유용한 금속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캠페인에는 운병태 시장을 비롯해 출근하

는 직원 40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폐건전지 6250개(350kg)를 수거했다.

시는 시청에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올바른 폐건전지 배출 문화 조성에 앞장서준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폐건전지 회수를 향상 위한 학생, 시민 대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군,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대통령상’ 패기

곡성군이 2022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지역산업진흥 부문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은 매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해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누어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상이다.

곡성군은 지역산업진흥 전략과제 발굴과 지역발전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인구문제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핵심 전략을 수립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인 ‘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군,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협의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민관이 협업하여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체류형거점공간 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은 정주 인구나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해 폐교(구 오곡초등학교)를 활용해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청년조직인 ‘정촌작당’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연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목재 건축학교, 숲놀이교육, 아토피치유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이룬 노력의 결실이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 기자

화순군, 안심홈 3종 세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방법 세트’ 지원...30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홈 방법 세트를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을 확보했다.

지역 여성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안심홈 방법 세트 3종을 총 1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화순군 거주 여성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가정용 무선인터넷(WIFI) 공유기를 보유한 가구다. 아파트 거주

자는 제외 대상이다. 다만, 부영 1·2·3·5·6차, 대광로제비당 1·2차, 흥용한고을아파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가정활력과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해당 가구), 한부모 증명서(해당 가구)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활력과 여성친화팀 (061-379-355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요강 발표

구례군, 2023년 1월 9일부터 작품 접수 시작

압화의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는 구례군에서 2023년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를 위한 작품을 공모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압화(국내전, 국외전)와 보존화 2개 분야로 접수는 2023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10일간)이며 1인당 1~2점 접수할 수 있다. 압화 분야 국내전은 구상(풍경, 정물), 추상(디자인), 장식(생활용품, 장신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물 접수를 하며 작품과 신청서를 한국압화박물관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보존화 분야는 사진 접수로 신청서와 작품 사진을 이메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지(<http://www.gurye.go.kr/farmtech/>)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압화대전을 통해 압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혼과 열정이 담겨있는 소중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사 결과는 2023년 3월 10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오는 4월 21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작품들은 1년간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 상설전시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제15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딸기 농업전문가 33명 양성

4월 18일 개강 후 10월 27일까지 총 27회 약 108시간 교육 진행



담양군은 최근 담빛농업관 3층 강당에서 졸업생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담양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인 농업인대학은 우리군 주력 품목인 딸기를 선택, 딸기 재배형태의 변화에 따른 수경재배과정을 선정 4월부터 딸기수경재배 과정을 개강, 36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지난 4월 18일 개강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27회, 약 108시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해 성실히 참석한 33명 농업전문가를 양성, 담양군이 강한 농업군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 참여한 이병노 군수는 “이번 농업인대학을 성실히 수료해주신 모든 농업인들은 앞으로 담양농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 | | | | | | |
|--------|----------|--------|---------|--------|--------|-------|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광관 |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널 | 포스코A&C | |